#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7期(2026.11.02) WWW.MINGHUI.ORG 한글판 1081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이웃이 '괴병'에 걸린 뒤

【중국법회】 학교 편집부 환경에서 법을 실증하다

【중국법회】 법회가 나를 다시 정진하게 하다

【해외법회】 신사신법하며 당당한 대법제자가 되다

# 〈목차〉

## 제23회 중국법회

이웃이 '괴병'에 걸린 뒤 ····· 3
작은 일에서 자신을 착실하게 수련하다 ····· 10
학교 편집부 환경에서 법을 실증하다 ····· 16
법회가 나를 다시 정진하게 하다 ····· 23
별빛처럼 진상의 빛이 신주(神州)를 비추다 ····· 34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것이 법이라면 넘지 못할 고비나 시련은 없다 41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첩첩산중의 험난한 고비를 넘다 ····· 53

## 해외법회

신사신법하며 당당한 대법제자가 되다 ····· 60
직장과 단체 교류 속에서 수련하다 ····· 68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웃이 '괴병'에 걸린 뒤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정일(靜一)

[명혜망] 2024년 늦봄 무렵, 우리집 이웃이 갑자기 괴이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종일 눈이 풀린 채 빤히 쳐다보고, 한밤중에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고, 이것저것 두드려 대서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이쪽에서 막 잠이 들려 하면 그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천둥소리 같았고 매일 한바탕씩 난리를 쳐서 이웃들이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웃들은 모두 참는 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신병에 걸렸다 하고, 누군가는 미친 척한다고 하는 등 온갖 말이 다 나왔습니다.

## 1. 집을 나오다

이 이웃은 50여 세쯤 됐고 부부가 모두 쾌활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줄곧 관계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문 앞에 있는 그의 쓰레기봉투를 늘 겸사겸사 가지고 내려갔고, 명절이면 제가 솔선수범해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두 사람도 저를 아주 존중해 만나기만 하면 큰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런 괴질에 걸릴 줄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수련인에게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은 당연히 제게도 교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약하다는 일종의 관념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갈등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감히 맞서지 못하고 늘 피했으며, 모든 일을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관념이 작용했습니다. 저는 집을 하나 찾아 피해 나갔고, 마음속으로 '이웃이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자, 계속 잠잠해지지 않으면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집을 한 채 사자'라고 생각하며 집을 팔려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간 직후에는 꽤 좋았고 아주 조용해서 잠도 푹 잘 수 있었으며, 법공부와 연공도 교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법공부가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공도 입정하기 쉽지 않았으며 잠을 잘 때 자꾸 꿈을 꿨고, 잠재의식 속에서 늘 이곳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우리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저는 매일 아침 원래 집으로 가서 '전법륜(轉法輪)'을 펴고 사부님 법상을 모셔 탁자 위에 놓고 사부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5일마다 집에 가서 둘러보며 사부님께 향을 올리거나 공양 과일을 바꿨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유난히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역시 집이 좋구나, 사부님 법상이 여기에 있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곳의 에너지장이 좋기 때문이야'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여전히 매일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비록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두 달 넘게 지냈습니다.

## 2. 화상을 입은 뒤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전기밥솥으로 쌀죽 한 솥을 끓여 전원을 뽑고 솥을 든 채 거실로 가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쿵" 하고 그곳에서 넘어졌고 쌀죽 한 솥이 전부 제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저는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고, 밥도 먹지 못하게 됐으며, 두 다리에 큰 물집이 많이 생길 정도로 데어서 몹시 아팠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후 저는 냉정해져서 안으로 찾았습니다. 수련한 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반드시 수련에 큰 누락이 있는 것입니다. 누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저는 법공부 팀이나 수련생들과 교류할 때 제가 자주 수련생들에게 자신이 수련 중에서 깨달은 바를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가 아프면 입을 수련[修口]하는 것에서 찾고, 부족함을 찾아 바르게 잡아주면 이 아픈 것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 심성에서 찾는데, 어떤 일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거나 화나게 하지 않았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 자신을 수정하면 상태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면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방면에서 찾아 자신을 바로잡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짚어준 것은 틀림없이 맞을 텐데 정작 저는 오늘 제 다리를 이렇게 데게 만들었으니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세 가지 일도 줄곧 평온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 수련 어디에 누락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합장하고 사부님께 빌었습니다. “제자가 정말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사부님, 제자를 한 번 일깨워 주십시오.”

사부님께 청하고 난 후 저는 그곳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꿈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꿈에서 저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건물이 대부분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겁에 질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두 낙담해 있었으며 저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문득 무너

지지 않고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이 한 채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뜻밖에도 제가 사는 그 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밖에 큰 덮개가 있어 건물을 모두 덮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이 대법제자가 살고 있는 곳)의 집은 조금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에 꿈에서 깼습니다.

## 3. 집으로 돌아온 뒤

사부님께서 꿈속에서 일깨워 주신 과정을 거치며 저는 밖으로 이사해 살아서는 안 되며 더더욱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제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바를 실천해 짐을 챙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여전히 그렇게 소란을 피웠고 조금도 고치지 않았고 이웃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와 주먹다짐을 하고 말다툼을 한 집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집도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사람이라 절대 남과 싸워서는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속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정념을 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그가 아무리 제멋대로 소란을 피워도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할 때 그가 또 소란을 피워 제 수련을 교란한다면 정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연달아 세 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몇 초도 안 돼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음속으로 '멈춰! 멈춰! 멈춰!'라고 외우면 기척이 없어졌고 저는 정상적으로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소란을 피우면

저는 또 외웠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 소란을 피우자 저는 조금 짜증이 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면 조만간 누군가가 그의 집 문을 박살 낼 거야!' 참으로 공교롭게도 3일도 안 돼 그의 집 문이 과연 누군가에게 부서졌는데, 누가 부쉈는지도 몰랐고 아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일로 3일간 조용해졌지만 3일 후에 또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소란 피워봐라! 어느 날 창문 유리도 부서질지 모르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과연 창문 유리도 누군가에게 부서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평소처럼 소란을 피우고 평소처럼 욕을 했으며, 게다가 소란 피우는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러다간 조만간 누군가가 벽돌로 뒤통수를 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생각을 끝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생각은 거둬들여야 해! 대법제자는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3일도 채 되지 않아 과연 고등학생 세 명이 아래층에서 그와 싸우면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겠다고 떠벌렸습니다. 다행히 말만 그렇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듣고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어! 내가 생각을 거둬들인 것이 정말 다행이야.'

## 4. 참음의 함의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대법제자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더 주의를 기울여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잘 닦고, 대법제자와 속인의 관계를 바르게 배치해야겠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만난 것은 분명히 제가 '닦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예 참음[忍]을 수련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할 때 그가 또 소란을 피우거나 욕을 해도 저는 정념을 발하지 않고 그저 그가 노래를 부른다고 여겼습니다. 사부님께서 "화를 내거나 원망함이 전혀 생기지 않으며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수련자의 참음이다"(정진요지-무엇이 참음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누군가가 징을 치고 북을 두드려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잘해 반드시 이 정력(定力)을 수련해 내고 자신을 이겨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나오자 그날 이웃은 마치 벙어리가 된 듯 괜찮아졌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고 보니 그가 내 수련을 도와주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 후기

지금까지 이 일이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는 단 세 번만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워 저를 잠에서 깨운 후 저는 스탠드를 켜고 시계를 보았는데 마침 밤 11시 55분으로, 바로 매일 전 세계가 정념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아 정념을 발하자 그쪽은 조용해졌습니다.

또 한번은 새벽 3시였는데 시계를 보니 일어나 연공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이 법회 원고를 쓸 때 아래층에서 여자 몇 명이 재잘재잘 수다를 떨었는데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제가 막 짜증이 나려던 참에 이 이웃이 창문을 열고 욕을 해 그 여자들을 쫓아냈고,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은 기척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좀 이상했습니다. 농담 한마디 하자면 지금 이웃이 마치 '호법(護法) 사자

(使者)'가 돼 저의 수련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뜻밖에도 대법제자를 성취시키기 위해 안배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가엾은 이웃에게 저는 정말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련은 정말 아주 신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괴병'에 걸린 이 일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하자면 연극 속에 또 연극이 있고, 연극 밖에도 연극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모든 것이 사부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진수(眞修)하고 실수(實修)합시다! 높은 곳까지 수련해야만 비로소 대법이 정말로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참으로 너무나 진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合十)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작은 일에서 자신을 착실하게 수련하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시웨(喜悅)

[명혜망]

존경하는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다가오는 즈음, 몇 가지 작은 일에서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고 착실하게 수련한 심득을 글로 써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실증하려 합니다.

## 1. 더러운 것을 꺼리고 번거로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다

제가 세 들어 사는 집은 사합원(四合院)에 있으며 마당 안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하나를 같이 사용하는데 자동 물 내림 시설이 없어 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를 씻어 내려야 합니다. 제 방은 화장실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으며 4~5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은 농촌에서 온 부자인데 아들 러러(樂樂)는 30세 청년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후 한 번도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고약한 대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러러에게 몇 번 물을 내리라고 일깨워 주었지만 매번 웃으며 "미안합니다"라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를 씻어 내렸습니다. 러러는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고, 저는 매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물을 내려야 했기에 점차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어느 날 러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다시 가

서 변기 물을 내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떼려다 참았습니다. 참기는 했지만 마음속은 정말 요동쳤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를 씻어 내렸지만 방에 돌아와서 곧 냉정해졌습니다. '이런 짜증 나는 일을 겪는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겨냥해서 온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안으로 찾기 시작했고 마음속 깊이 숨겨진 수많은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사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자(惡者)는 질투심의 소치로 자신을 위하고, 화를 내며, 불공평하다고 한다. 선자(善者)는 늘 慈悲心(츠뻬이씬)이 있어, 원망도 증오도 없이,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 각자(覺者)는 집착심이 없으며 세인들이 환각(幻)에 미혹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정진요지-경지)

러러에 대한 이런 분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바로 질투심의 표현이 아닙니까? 원망은 바로 선(善)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 저것 꺼리는 것은 바로 사심이고 자신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구(舊) 우주의 생명은 바로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저는 우주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이니 오직 우주의 진선인(眞·善·忍) 특성에 동화되어야만 새로운 우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의 심성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해야 함을 알았고, 수련 중에 아무리 작은 일을 겪더라도 밖으로 남의 부족함을 봐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거울삼아 제 부족함을 비춰봐야 했습니다. 집착심을 찾았으니 정념(正念)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더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며 대법으로 저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법리상에서 명확해지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용량을 넓히며,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자비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순간 불만스러운 감정이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러러가 다시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런 잡념 없이 대야에 물을 받아 변기를 씻어 내렸습니다.

수련 중에 보게 되거나 겪게 되는 일은 모두 우연이 아니며, 사존께서 제자를 제고시키기 위해 안배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안으로 찾으면 수련해서 없애야 할 사람 마음을 찾게 되고 심성도 그에 따라 제고됩니다. 표면적인 그 일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며, 설령 계속 존재하더라도 더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 2. 제가 변하자 삼촌과 숙모도 변했습니다

우리집은 형제가 많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저를 북쪽 지방에 사는 삼촌과 숙모 댁에 맡기셨고 삼촌은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숙모는 매우 기가 세서 집안에서 항상 자기 뜻대로 했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를 내며 삼촌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숙모는 늘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키셨고, 매일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했기에 마음속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집으로 데려가셨지만 삼촌은 줄곧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대학에 다닐 때 삼촌이 주신 학비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보다 많았기에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작년 겨울, 삼촌이 후두암에 걸려 급히 수술을 앞두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숙모와 삼촌이 당장 북쪽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단기간에 돌아오기 어려워 수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지 않으면 양심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이타적이고 사심이 없어야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준비를 마친 후 즉시 비행기를 타고 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숙모와 함께 삼촌을 모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했고, 무슨 일이든 저에게 의지하셨으며 두 분 모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삼촌과 숙모를 보살폈습니다. 숙모는 매일 밖에 나가 춤을 추고 마작을 하셨기에 삼촌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숙모는 매일 집에 돌아오시면 자주 큰소리를 쳐서 저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숙모가 반찬 접시를 삼촌과 자신 앞으로 밀어놓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제가 많이 먹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릴 때 말씀하시던 것처럼 엄격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러진 위축된 마음은 수련한 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나도 이제 곧 60세인데 어릴 때처럼 눈치를 보며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숙모와 따지지는 않았지만 가끔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동생이 가전제품을 고치러 와서 전력량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숫자가 올라가지 않아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숙모와 상의했습니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며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이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뜻밖에도 숙모는 화를 내시며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참지 못하고 몇 마디 대꾸를 했습니다.

그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 저는 도무지 수련인 같지 않았고, 완전히 속인의 이치 속으로 파고들어 그 일 자체만 따지며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치를 명확하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지 숙모와 다퉈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숙모가 날 대하

시는 태도도 우연이 아닐 텐데, 사존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 내 어떤 마음을 없애려 하신 것이 아닐까? 심성을 높일 좋은 기회였는데 잘하지 못했구나.'

이 일을 통해 끊임없이 안으로 찾았고 많은 집착심을 찾아냈습니다. 원망심, 쟁투심,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체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면을 한 층 한 층 깊이 파헤치다 마지막으로 깜짝 놀라 발견한 것은, 삼촌에게 하듯 진심으로 숙모에게 잘해드리지 않았고 그저 예의 바른 태도와 어른에 대한 예의만 차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먼저 숙모에게 사과드렸습니다. "숙모,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무뚝뚝하게 했어요, 대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 고칠게요." 숙모는 웃으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늙은이 둘을 돌봐주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니."

매일 삼촌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 외에도 사존의 설법 녹음을 들려드리고 '풍우천지행(風雨天地行)', '우리는 미래에 알린다(我們告訴未來)' 등의 진상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시던 숙모와 삼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껏 외우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더니 두 분 모두 기쁘게 승낙하셨습니다.

저는 변해서 진심으로 두 분을 배려하고 매사를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대법이 좋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셨기에 건강이 아주 빨리 회복되셨습니다. 설날 때 삼촌은 사존의 법상(法像)에 공손하게 절을 세 번 올리며 대법 사부님께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숙모에 대한 원망심을 버린 이후부터 숙모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좋아지셨습니다. 몸에 맞게 옷을 수선해 드리자 손재주가 좋다고 연신 칭찬하셨습니다. 삼촌은 저희 둘이 웃고 떠드는 것을 보시고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숙모는 제가 너무 말랐다며 반찬과 밥을 더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처럼 신경 써 주셨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숙모가 마작을 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사존의 설법 녹음을 듣고 있었는데,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이 법을 들으셨습니다. 숙모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忍)’이라는 글자는 너무 어렵구나, 너는 참아내지만 나는 못 하겠어.”

또 어느 날 연공(煉功)을 하고 있는데 숙모가 보시고는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한테 파룬궁을 배우고 싶어, 나 좀 가르쳐 줘.” 숙모가 먼저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하실 줄 생각지도 못했기에 제 마음에 쏙 들었고 너무 기뻐서 다섯 가지 공법을 모두 가르쳐 드렸습니다.

비록 삼촌과 숙모가 아직 진정으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기쁜 변화는 저를 매우 흐뭇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는 사존의 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존의 요구대로 잘하고 진선인에 동화되며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여, 세 가지 일을 잘해 사존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존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학교 편집부 환경에서 법을 실증하다

글/ 중국 랴오닝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6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고 올해 63세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련의 길을 걸으면서 착실히 수련하는 가운데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아 수련 과정 중 한 단락의 경험을 글로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 1. 대법제자는 어디에 있든 찬란하게 빛난다

2008년, 모 대학 학보 편집부에 문과 편집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 학보에는 문과 편집자가 3명 있었는데, 여교수 2명, 남교수 1명이었습니다. 편집부에는 사무실이 두 개 있었는데, 남쪽 방은 따뜻하고 밝아 두 여교수가 사용했습니다. 북쪽 방은 어둡고 습해서 주로 창고로 쓰였는데, 커다란 철제 선반 두 개가 놓여 있었고 문가에 책상 하나를 두어 그 남교수가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주임은 난처한 기색으로 “지금 편집부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 저 두 여교수님은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뜻인즉슨 저에게 북쪽 방에서 그 남교수와 함께 근무하라는 것이었고, 학교에서 곧 새로운 사무실을 배정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네, 문제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교수의 책상 옆에 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제 책상은 달리 놓을 곳도 없었고, 다른 공간은 커다란 철제 선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십몇 년이 지난 정기간행

물과 형제 대학에서 보내온 교류용 증정 간행물이 쌓여 있었는데, 어떤 것은 뜯겨 있고 어떤 것은 안 뜯겨 있어 방 전체에서 퀴퀴한 종이 곰팡내가 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어디에 있든 찬란하게 빛나고, 대법제자가 있는 곳은 어디나 눈부시게 밝다.' 대법제자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자신을 순수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선인'의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정돈한 후 계획적으로 이 사무 환경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원고를 보고 수정하는 일 외에, 휴식 시간에는 그 수많은 낡은 잡지들을 정리해 연도와 호수별로 배열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종류의 간행물은 10권씩 선반에 남겨두었는데, 저자의 조회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자들이 직함 평가 등의 이유로 편집부에 자신이 발표했던 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는 간행물은 모두 연도별로 묶어서 선반 아래에 쌓아두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남교수는 한 번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느낌상 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포장용 끈으로 엮은 장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단추 하나가 떨어진 낡은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50세 남짓한 나이에 키는 크지 않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몰락한 문인 같은 외모 속에 뼛속 깊은 고고함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교류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눈부시게 '밝아진' 후, 어느 날 그가 마침내 먼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은 인품이 훌륭

하시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수들로부터 그가 아주 별나고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많아졌는데, 그는 그 두 여교수를 맘에 들어 하지 않아 자진해서 창고로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그녀들이 “너무 속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고위 지식인이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타도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교류가 잦아진 후 그에게 진상을 알려보려 했으나, 매번 그의 기이한 언행과 저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화제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가정의 변고가 남긴 그늘이 너무 짙어, 공산당의 선전과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한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재주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깔끔하다니, 그야말로 눈부시게 밝네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해서 아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나중에 그녀에게 진상을 알렸을 때 공산당이 매우 사악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그녀의 아버지 역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통해 이미 대법제자의 선량함, 포용,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 2. 이익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하고 착실하게 수련했습니다

2012년, 편집부에 새로운 주임이 오면서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간행물 구조도 조정돼 정식으로 문과와 이과 두 가지 간행물이 발행됐습니다. 문과 편집자는 6명으로 늘어났고, 조건이 아주 좋은 큰 사무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커지자 잡동사니도 많아졌고 전담 청소 인력도 없어, 자칫하면 아주 어수선해졌습니다. 당시 편집자 중에는 30, 40대도 있었고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매일 바닥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제 차지였습니다. 주임이 우리 사무실에 올 때마다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문과 사무실은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네요.”

편집부에는 출장 가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편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편집자들이 번갈아 가며 다녀왔습니다. 대다수 편집자는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이나 풍경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역 특산물을 좀 사고는 그 비용을 출장비나 회의비 명목으로 청구해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지도부에서 안배하더라도 가급적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풍경 구경에 관심이 없었고 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더라도 제가 쓴 돈은 공무 출장비에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택시 영수증 한 장도 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 수련자로서 이익을 담담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급 직함의 퇴직 연령은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5세 때 제가 퇴직을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퇴직을 원치 않으며,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 합니다. 저도 이익을 완전히 내

려놓지는 못했습니다. 5년을 더 일하면 월급으로 20여만 위안을 더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연금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조금 미련이 남았을 때, 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대학 동창 하나가 어느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쓰레기통의 휴지들을 큰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을 해?"라고 묻자, 그녀는 "수입을 좀 늘리려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버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말한 숫자는 정확히 제가 당시 속으로 계산했던, 퇴직하면 매달 덜 받게 될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제게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둘러 잘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퇴직하기로 결심하고, 한정된 시간을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데 사용해 서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바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쉬워했으며,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퇴직하지 마세요. 교수님 원고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네?" 동료들의 호의는 매우 감사했지만 저는 대법제자이기에 해야 할 더 신성한 일이 있고 완수해야 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저는 몇 년간 편집부에서 제게 지급했던 참고도서, 사전, 스테이플러 등 사무용품을 전부 정리해서 사무실 열쇠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퇴직 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저는 매일 나가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진상을 알리고 있습

니다.

## 3. “그녀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인품이 훌륭한 교수입니다”

지식인 역시 복잡한 집단이라, 뼛속 깊은 고고함과 함께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에 의해 변이된 교활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참으로 유별납니다. 사무실의 몇몇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있는 듯했는데, 겉으로는 관계가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기만 하면 즉시 서로 헐뜯고 다투었습니다. 원고 배분이 불합리하다느니, 편집 교정비 분배가 불공평하다느니, 출장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느니, 아무개가 교정한 원고 질이 떨어진다느니, 아무개가 지도부에 뇌물을 주고 무슨 혜택을 받았다느니 하며, 매일 출근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慈悲(츠뻬이)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전법륜)

저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 속인의 마음을 없애면, 이 갈등이 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법의 기준에 따라 갈등 속에서 저의 심성을 지켰기에 갈등이 제게 작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일이 있건 없건 저와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무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어떤 동료는 저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할 때 저는 그들에게 진상도 좀 알려주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우려하는 바가 많아, 어떤 이는 진상을 듣고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진상을 듣고 삼퇴에 동의했으며, 어떤 동료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서기도 했습

니다. 그들은 저의 언행을 통해 '진선인'이 옳다는 것과 파룬궁수련생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2015년 제가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후, 파출소 경찰 6~7명이 경찰차를 몰고 학교로 와서 저를 납치하러 왔습니다. 편집부 주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무슨 조직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 편집부에서 가장 인품이 훌륭한 교수님이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며, 어떤 업무를 배정하든 절대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편집부에 다 이런 교수님들만 계신다면 일하기 참 수월할 겁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그녀가 어떤 부적절한 선전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보름 후 제가 학교로 출근하자 주임은 제게 "아무런 걱정 마세요. 동료들도 모두 교수님을 색안경 끼고 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임이 편집부에 왔을 때 저는 그에게 진상 편지를 한 통 써주었고, 그는 진상을 알게 돼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본교 제1호 정공(政工) 교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학보 이공계 판도 몇 년간 국가 핵심 간행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결국 그의 재임 기간에 성공적으로 등록됐고, 그는 즐겁게 퇴직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걸어온 제 수련의 길을 돌아보면,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제자를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일깨워주셨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저는 향후 수련의 길을 잘 걷고 정진하고 착실하게 수련해 세 가지 일을 잘해내야만 사은(師恩)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법회가 나를 다시 정진하게 하다

글/ 중국 산둥 대법제자 청련(淸蓮)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빌려, 지난 1년 동안의 수련 심득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1. 처음 나가서 진상을 알리며 두려움을 버리다

어느 날, A 수련생, B 수련생과 짝을 지어 장터에 진상을 알리러 갔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지 10여 미터쯤 됐을 때, 그녀들은 한 노점 앞에 서서 지난번에 삼퇴를 하지 않은 남자 노점상에게 진상을 알렸고, 저는 뒤에 서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습니다.

이때 한 수련생이 다가와 자신은 서둘러 출근해야 한다며, 삼퇴를 한 사람의 이름을 대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막 다 적었을 때, B는 이미 물건을 사던 한 아저씨에게 삼퇴를 권해 제게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적을 때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40세가량의 아주 민첩해 보이는 남자가 목을 빼고 제가 이름을 적는 작은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와 펜을 얼른 가방에 쑤셔 넣었고, 그 남자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저를 보더니 다시 제 가방을 보았습니다.

저는 뒤로 손을 뻗어 B를 살짝 당기며 “우리 앞쪽으로 가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도 남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복경찰을 만났다고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확실히 이 구역의 보조 경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자, 그 남자는 시종일관 2~3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를 쳐다보았고 수시로 제 가방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 사람 모두 그의 시선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람의 관념을 움직인 것이고, 자신이 대법제자임을 잊었으며, 신통을 사용해 그를 고정하거나 떠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자 그도 정말 저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얼른 한 노점 앞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조금 샀고, 북적이는 사람들 틈으로 그 사람이 저를 찾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곳에 쪼그려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서둘러 일어나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 과일을 사는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과일을 조금 사고 막 몸을 돌렸을 때, 그 사람이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자, 그는 아예 뒷걸음질을 치며 저와 2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유지한 채 눈을 똑바로 뜨고 저와 제 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처음 진상을 알리러 나와서 아직 입도 떼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몰라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때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저 마음속으로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념 구결을 묵묵히 외울 뿐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갑자기 “시시각각 정념(正念)으로 악인을 정시(正視)

하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라는 사부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도 멈춰 섰지만 여전히 2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유지한 채, 변함없이 위에서 아래로 저를 계속 훑어보았고, 특히 제 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저와 그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그는 갑자기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를 똑바로 주시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기를 반복하며 20여 미터를 가더니, 마치 뛰어가려는 듯 서둘러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이때 A가 저를 찾아왔고,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제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정신이 들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A에게 “우리 먼저 돌아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진상을 밝혀 중생을 구도하는 것을 구세력은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데, 관건은 일을 할 때의 심태(心態), 그것이 빈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각지 설법 2-2002년 보스턴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사악의 교란을 초래했을까요? 첫째는 제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상을 알리러 나가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려웠고, 나가서 진상을 알리면 누군가 신고할까 봐, 박해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잘 말하지 못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고, 삼퇴를 시키지 못하면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심과 잡념을 품고

서 어떻게 중생을 구하는 이토록 신성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터에서의 일들을 끊임없이 회상하며, 진상 알리는 것을 교란하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정념을 발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대법제자의 정념 어린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악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면에 관한 법은 사부님께서 이미 명확히 말씀하셨고, 게다가 제자 곁에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이 계시는데 제가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게 정념이 생겼다고 느꼈으며, 반드시 당당하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 2.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며 심성을 제고하다

처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인상이 좋아 보이거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상대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알리는 진상은 수련생들이 알리는 진상과 대동소이한데도, 수련생들은 아주 수월하게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삼퇴에 동의하게 만들었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선량해 보이는 사람조차 제 말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삼퇴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보며, 비록 수련생들과 같은 말을 하지만 수련생들이 가진 그런 평온함과 담담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 우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체면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중생구도를 가로막는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정념을 발했고, 매번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아, 마침내 순조롭게 사람들에게 삼퇴를 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은 장터에서 60대 아저씨가 어느 노점의 파라솔 아래 서서 땀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를 향해 웃으며 "저도 이쪽으로 와서 좀 식혀야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웃으며 "아휴! 정말 너무 덥네요. 휴대폰을 보니 체감 온도가 37도나 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라며 그의 긴 눈썹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도를 닦으시나요? 뭔가 신선 같은 풍모가 느껴져서요." 그는 눈을 덮을 정도로 긴 자신의 눈썹을 만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제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불교도 믿지 않고 도를 닦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세요? 저는 도를 닦으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자, 그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부처님을 믿어요." 그가 "딱 봐도 선량해 보이네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불가(佛家)에서는 인연을 중시하는데,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지요. 제가 좋은 일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 말을 듣게 되신 것도 아저씨 복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가 "무슨 좋은 일인데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진심으로 공경히 외우면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TV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이 선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파룬궁은 불가의 상승(上乘, 최상) 수련 대법으로,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장쩌민이 질투심에 기인해 좋은 사람들을 박해한 거지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살이나 살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쩌민은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으로 전국의 민중을 속였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잘못인가요?"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니 분명 잘못이 없죠. 공산당이 맨날 운동(좋은 사람을 박해함)을 벌이길 좋아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고, 사람이 마땅히 선량해야지요."

제가 또 말했습니다. "아저씨, 학교 다닐 때 붉은 스카프를 매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난 공청단에도 가입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공산당의 조상은 마르크스고,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중화의 자녀이지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공청단과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하세요.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보시니까, 실명이나 아명, 가명을 써도 다 돼요. 우리 서민들은 마땅히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으며 좋은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보살핌과 부처님의 가호를 구해야죠, 안 그런가요?" 아저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또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용감히 진실을 말하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권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당신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사람은 마땅히 선량해야 하고 하늘의 보살핌을 구해야지요. 공산당은 이제 끝났어요. 난 실명으로 탈퇴할게요. 내 이름은 ○○○이고, ○○마을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사리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제가 알려드린 아홉 글자를 절대 잊지 마세요." 아저씨는 "기억하고 있어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시장에서 방금 비가 온 뒤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복숭아를 파는 노점 앞에 가서 복숭아를 좀 사려고 했습니다. 저는 복숭아를 담으면서 노점상에게 물었습니다.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는 “누가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탈퇴하셨어요?”라고 묻자, 그는 “난 아무것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뭘 탈퇴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엇비슷할 텐데, 어떻게 붉은 스카프를 안 매보셨겠어요?” 그가 회피하고 있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워서 감히 진상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해 수련생이 삼퇴를 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다 ‘머리 삼척 위에 신명(神明)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가 “그건 그렇죠”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속여도 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조직에 가입하든 다 맹세를 해야 하는데, 그 맹세를 신께서 지켜보고 계셔요. 공산당은 무신론을 주장해서, 사람이 신을 믿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려 들죠. 보세요, 지금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하늘이 사람을 거둬가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사람 마음이 나빠져서 그래요. 우리 민중은 마땅히 신을 믿어야 해요. 마음속으로 무신론인 중공 악당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과 부처님께 평안을 기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는 아까처럼 그렇게 경계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붉은 스카프 매보

신 적 있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이 뭔지 물으려 할 때 갑자기 복숭아를 사려는 사람이 3~4명 몰려왔고, 그는 손님을 맞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채소를 사고, 내친 김에 또 몇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 탈퇴시켰습니다. 복숭아 파는 노점상 쪽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하던 말이 덜 끝났는데 복숭아 파는 데 방해될까 봐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해요. 파룬궁은 TV에서 중공이 선전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 세계에 널리 퍼졌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또 중공 악당이 어떻게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으로 대법을 모함했는지 말해주었는데, 그는 줄곧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명으로 가입하셨던 소년선봉대를 탈퇴하세요. 우리 무신론에서 벗어나서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부처님의 가호를 구하는 게 어때요?" 그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또 누가 이 얘기를 꺼내면 이미 탈퇴했다고 하시면 돼요. 중복해서 탈퇴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줄 알고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 "난 공산당원이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진심을 말해주시니 정말 기뻐요." 저는 그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공산당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해서 아주 깨끗한 중화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빌게요!" 그는 연신 "고마워요!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건 없고, 고마워하시려거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

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꼭 기억하시고, 자주 외우시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는 기뻐하며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이 순수하고 아무런 우려나 잡념이 없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은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늘에 서서 땀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등판이 땀에 절반 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아주머니, 정말 더우신가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맞아요, 내가 좀 땀이 많아요. 너무 뚱뚱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동북 억양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이 넓고 몸이 넉넉하면 번뇌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 명랑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실 거예요.” 그녀는 하하 웃으며 “맞아요, 내 성격이 원래 좀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주머니한테 시원하게 좋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시면 평안을 얻으실 거예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불법(佛法) 수련이에요. 공산당은 무신론이라 부처를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을 박해하니, 우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녀는 “그야 그렇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당, 공청단, 소년선봉대에 가입해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공청단엔 가입해 봤어요”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주머니한테 삼퇴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녀는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치(齊) 씨예요, 가지런하다는 뜻의 치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우리 ‘치허러(齊和樂)’ 라는 가명으로 가입하셨던 공청단과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하는 게 어때요?” 그녀는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조롭게 가입했던 악당 공청단과 소년선봉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고구마를 파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항상 험상궂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련생이 몇 번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거나 큰 소리로 수련생을 쫓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침 그의 수레 옆을 지나가다 노부부가 그의 고구마를 사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노부부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막 입을 열었는데 노부부가 외지 사람이라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을 알고는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마를 사고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파는 젊은 청년을 보며 “이 고구마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구워 먹으려면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너무 퍽퍽해요. 가서 ○○품종을 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은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네요. 남들은 다 자기 물건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나보고 사지 말라고 말리다니요. 그 말 한마디를 봐서라도 맛있든 맛없든 무조건 살게요.” 굳어 있던 그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고구마를 저울에 달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진심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불법(佛法) 수련이에요. ‘파룬따

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다시 굳어졌지만 차마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비를 가득 품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우연히 만난 사이고, 당신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아줌마는 단지 만약 정말 무슨 재난이 닥친다면 예전에 어떤 아줌마가 해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떠올려주길 바랄 뿐이에요. 한 번 해봐요. 어쩌면 정말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꿔줄지도 모르잖아요. 아줌마는 청년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얼굴이 좀 풀어지더니 작은 소리로 "음, 알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거스름돈을 줄 때, 저는 그의 결제 QR코드에 적힌 이름을 보고 말했습니다. "○○ 씨, 학교 다닐 때 가입했던 소년선봉대를 탈퇴해요. 우린 무신론자의 무리에 서지 말고 신의 가호를 구해야지. 마음속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신께서 다 아셔요. 아줌마는 진심으로 청년이 평안하길 희망해요." 그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어 걸음 걸어 나가다 뒤돌아 다시 물었습니다. "공청단엔 가입 안 했죠?" 그는 "안 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내 예상이 맞았네"라고 하자, 이번에는 그가 정말 활짝 웃었습니다.

## 3. 삼퇴 명단 전송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다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매일 심성을 연마하게 됩니다. 저녁에 삼퇴 명단을 정리해 웹사이트에 전송할 때는 안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떠올려 봅니

다. 진상을 알고 순조롭게 삼퇴한 사람을 보면 환희심을 내지 말자고 스스로 일깨웁니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대법의 위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제게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악당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제 자신이 악당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한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현대 관념이나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식 사고가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욕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고 전화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속으로 그들이 하루빨리 진상을 알게 되기를 묵묵히 기원합니다. 매번 삼퇴 명단 전송이 성공하고 나면, 저는 구원받은 중생을 대신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별빛처럼 진상의 빛이 신주(神州)를 비추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에서 NTD 수신기 설치를 맡고 있는데, 이 항목을 하면서 겪은 수련 심득을 조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08년 유텔샛(Eutelsat) W5 위성이 폐쇄됐습니다. 원래 NTD

설치를 담당하던 수련생이 무척 실망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NTD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설치하려 한다면 모두 설치해 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오직 이 일념에 의지해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텔샛이 폐쇄된 때부터 아태 5호 위성이 교란받아 폐쇄되고 다시 NTD가 일본 2호 위성에 송출되기까지, 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큰 심혈을 기울였지만 NTD 시청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부 교란도 있었고 우리 자신의 원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NTD가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되며 마치 조금씩 반짝이는 별처럼 신주 대지와 전 세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NTD는 단순한 언론 매체를 넘어 진상을 알리는 항목이자 사람을 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기에 현재 많은 사람이 CCTV를 보지 않고 NTD만 봅니다. “이것이 그래도 깨끗합니다!” 어떤 이는 “NTD는 전부 진실한 뉴스입니다!”라고도 말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이처럼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복이자 중생의 복입니다!

## 명(名)을 닦아버리다

저는 속인 사회에서 엔지니어였고 관리직에 있으면서 작은 명성도 얻었기에, 구체적인 실무는 손을 놓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장이었고, 제 손을 거쳐 돈을 번 사장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으며 억대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시작할 무렵에는 다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앞서 말한 그 일념이 있었기에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항목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제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수련생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이 제게 무엇을 하라 하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대단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하게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을 하든 많은 사람이 함께하며 앞장서고 뒤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항목만큼은 항상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혼자서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크고 작은 골목을 누비고, 푸른 산과 맑은 물, 들판과 외딴 교외를 오갔습니다. 명예도 없고 이익도 없으며 오직 수련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시작해 10여 년, 20년이 지나다 보니 이따금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할 길은 갑니다. 길을 가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법을 외웁니다. 쨍쨍한 햇빛을 맞기도 하고 흠뻑 젖도록 비를 맞기도 했으며, 눈이 펑펑 내리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을 겪는 등 온갖 상황을 다 만났습니다. 저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한번은 교외에 있는 수련생 집에 NTD를 설치해 주러 갔습니다. 그 수련생의 아들을 보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들은 원래 대중교통 관련 일을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지금은 큰 가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물론 수련인은 속인과 다르기에 일이 생기면 안으로 찾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명성에 집착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미 수련을 선택했는데 그런 속인 중의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마 속인과 다투려 한단 말인가?' 재빨리 마음을 다잡고 그 명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 이익에 대한 마음을 닦아버리다

NTD를 설치하기 시작할 무렵, 박해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때로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교외로 설치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싶었지만 1위안짜리 차표 한 장 살 돈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여 리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지인들이 설치를 부탁하러 오면 보통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해에 예전 직장 동료가 집 한 채에 설치해 달라며 4천 위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안 받으려 했지만 마침 자재를 들여오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2천 위안을 받고 즉시 이웃 도시로 가서 자재를 좀 사 왔습니다. 나중에 그의 동업자가 다시 2천 위안을 주어 모두 자재를 샀습니다. 자재가 생기니 일을 할 때 경제적 압박이 없어져 비용을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일로 그 동료 가족도 복을 받아 여동생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재 동생은 미국에서 2층짜리 서양식 주택도 마련하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점차 수련생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다들 제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한번은 동창의 여동생이 이웃 현(縣) 수련생 집에 설치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웃 현 수련생은 우리 지역에 집을 샀고 가끔 와서 한동안 지내곤 했습니다. 제가 설치를 마치자 그 수련생은 이웃 현에 있는 자기 집에 와서 신호를 잡아달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웃 현으로 자주 설치하러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비와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노년 수련생이 많았고 경제적 여건도 다들 넉넉지 않았습니다. 제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부터는 교통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온 셈 치죠, 이깟 돈 쓰는 게 뭐 대수인가요!” 그래서 이웃 현에 가는 비용은 모두 수련생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NTD 설치와 동시에 매년 명혜망 진상 탁상달력 제작을 맡아 1만 개씩 만들어 이웃 현에 일부(2~3천 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쪽에서 와서 가져갔고 때로는 제가 직접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여 년을 해왔지만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 뭉칫돈(만 위안은 족히 넘을 듯한)을 가져다주면 모두 사양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여 년간 그들에게 달력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족히 수만 개는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 전부 우리 돈은 아니고 일부는 다른 지역 수련생들이 지원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2017년 아버지 댁에서 돌아오던 길에 한 병원 앞을 지나게 됐는데 바닥에 아주 두툼한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만 위안은 돼 보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그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 정(情)을 닦아버리다

2008년 시골에 있는 한 수련생 집에 설치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암에 걸려 성(省) 소재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 있었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는 10위안도 채 안 되는 돈이 있었

는데, 돌아갈 차비를 남겨두고 남은 2위안으로 노점에서 찐빵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아침으로 주었습니다. 아이는 먹지 않고 화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황급히 쫓아 나갔지만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쫓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수련생 집 안테나를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도시에서 자라며 학교에 다녔고 세상물정도 좀 아니까 길을 잃지는 않을 거야. 게다가 사부님께서 돌봐주고 계시잖아!'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간청드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련생 집으로 돌아가 안테나를 잘 설치해 주고 신호까지 다 맞춘 후에야 수련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련생은 서둘러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은 5위안으로 차표를 사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어보니 꼬마 녀석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그제야 불안했던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아이는 홧김에 멀리 뛰쳐나갔는데 길도 모르고 혼자 울면서 도로를 따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한 상점 앞에 다다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초지종을 묻더니 먹을 것을 주고 다시 10위안을 줘서 차표를 사서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련생에게 부탁해 그 상점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외진 산골에 있는 수련생 집에 설치하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부슬비가 내렸는데 저는 비를 맞으며 설치를 했습니다. 비에 온몸이 젖고 옷도 다 젖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다 그치면 젖은 옷이 말랐고, 다시 비가 오다 그치면 마른 옷이 다시 젖기를 반복하며 꼬박 이틀 밤낮을 작업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번은 수련하지 않는 사람과 약속하고 그 집에 설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날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니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장비와 공구를 챙겨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출발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눈이 점차 잦아들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그쳤습니다. 공구를 꺼내 설치하려는데 뜻밖에도 해가 났고 잠시 후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은 어떤 수련생 집에 설치하러 갔습니다. 그는 시골 아버지 댁에 일이 생겨서 제게 먼저 가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도착해 옥상에서 신호를 맞추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TV를 연결했습니다. 외부 케이블 하나에 커넥터를 연결하고 TV를 켜서 신호를 맞췄는데 다소 흐릿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맞춰졌습니다. 그때 그가 시골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선인가요?"라고 묻자 그는 "이 선입니다!"라며 다른 선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다소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외부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호를 맞췄다니요! 이치대로라면 신호 소스가 없으면 아예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신호 소스도 없는 그 외부 케이블로 TV 신호를 맞춘 것입니다.

NTD를 설치하려면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서 막차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당일에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를 잡거나, 아니면 신기하게도 원래 시간을 훌쩍 넘긴 막차가 한 대 남아 있기도 했고, 심지어 가끔은 지인을 마주치기도 하는 등 어쨌든 신기한 일이 발생해 무사히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좀 낫지만, 겨울이 되

면 일찍 날이 어두워져서 길에 일찌감치 차가 끊겼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늦게까지 기다려야 해서 밤 9~10시가 되도록 차를 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간절히 부탁드렸고 항상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자기 할아버지가 제게 초능력이 생겼다고 말했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사부님께 차를 보내 저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드린 것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비록 NTD 설치 대수가 널리 보급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부님의 보호하에 수련생이나 설치를 바라는 시민이 있기만 하면 저는 기꺼이 찾아갔습니다. 춘하추동을 거치며 NTD가 진상을 전파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별빛처럼 반짝이며 갈수록 더 많은 시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것이 법이라면 넘지 못할 고비나 시련은 없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에 여자아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곱게 자랐습니다. 게다가 외모, 몸매, 키까지 모두 남달랐기에 콧대가 높고 지기 싫어하며 안하무인인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해줬고, 저를 더할 나위 없이 아끼고 보살펴 줬습니다.

1996년, 뜻밖의 홍수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만 친척들은 모두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저 역시 경

제적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소개해 준 비교적 조건이 좋고 정상적인 독신 남성들은 모두 제 두 아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살 아들과 생후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1년 넘게 떠돌며 온갖 시련을 겪다가, 어쩔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백 리 밖 진(鎭)의 임장(林場, 국유림 관리소)에 정식 직장이 있고 외모가 괜찮으며 나이도 비슷하지만 지능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변을 보고도 제대로 닦지 않는 일이 잦아 속옷은 늘 누렇게 돼 있었고, 세수도 손 씻기도 자주 거르는 데다 성미는 어찌나 급하고 불같은지 말을 듣지도 않고 남이 지적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유난히 깔끔한 편이고 성격도 불같고 성미도 아주 급한 사람이라, 갑자기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싸우자니 당해낼 수가 없고, 말로 하자니 통하지를 않아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만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겪었던 막막함과 막다른 길, 심지어 절체절명의 상황을 떠올리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게다가 부체(附體, 사람 몸에 붙는 동물, 귀신 등의 영체)까지 초래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일상생활조차 꾸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죽자니 두 아이가 걱정됐고, 살자니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그때, 1998년 4월의 어느 날 친척의 소개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얻은 바로 그날 제 정신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체가 가져온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저는 보서(寶書) '전법륜(轉法輪)'을 얻었습니다. '전법륜'을 읽는 과정에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 제가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웠는지도 알게 됐는데, 모두 자신이 생생세세에 지은 업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온 것은 제가 법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 이곳에 왔는데, 그에게는 우리를 먹여 살릴 월급이 있으니 (그는 직장에서 가장 단순한 육체노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와 아이들의 은인이다. 반드시 그를 잘 대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단체 법공부와 연공 속에서 제 오성(悟性)이 점차 제고됐고, 잇달아 '홍음', '홍음 2', '홍음 3'의 일부분을 외웠으며, '정진요지'도 모두 외웠습니다. 또한 '전법륜'을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대법과 수련 속에 용해돼 있으니, 대법을 얻은 그 행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한 후, 저는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수련생들과 함께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하려 했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이 저를 구해주셨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알려주셨으며, 속인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만년에도 만나기 힘든 이 대법을 얻었으니 저는 너무나도 행운아였고, 이토록 좋으신 사부님과 이토록 좋은 대법이 먹칠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렀을 때, 우리와 각지에서 온 수많은 수련생이 검문에 걸려 함께 기차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몇 달 동안 저는 외웠던 법을 다시 능숙하게 외웠고, 두 번째로 '전법륜'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잇달아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는데, 11월에 원래 우리 세 수련생이 함께 베이징에 가기로 준비했으나, 그 두 수련생은 저에게 거리낌이 있을까 봐 걱정돼 이튿날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사흘째 되는 날 5살 난 딸을 데리고 막 떠나려던 참에 방금 베이징에서 돌아온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아주 삼엄해요. 거기 가면 기관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기관총이 있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고 베이징 청원길에 올랐습니다. 시내에 도착하니 야간 기차를 기다려야만 베이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이 울고 보채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역 안의 낯선 인파를 바라보며 문득 '아들은 어찌 됐을까? 바보 같은 남편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음이 올라오자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와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몽환(夢幻)이 지나가버리면 비로소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정진요지-퇴직하여 다시 연마)

저는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사악이 아들에 대한 제 정(情)을 이용해 법을 실증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며, 제 정념이 나왔습니다. 사부님의 일깨움과 보호 아래 저는 한밤중에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고, 지혜롭게 삼엄한 불심검문을 피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다시 지하철을 탔고, 마침내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외지 수련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경찰에게 함께 붙잡혀 경찰차에 태워졌고,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저는 현지 경찰에게 인계돼 돌아왔고, 27일간 불법 구류됐으며 직장에서 9천 위안(당시에는 거액에 해당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매달 500~600위안 되는 월급에서 다 공제될 때까지 절반씩 깎아 나갔습니다.

딸이 유치원 학령전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편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저는 공장에 취직해 출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전부 육체노동이다 보니 매일 퇴근한 뒤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살림을 마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늦었고, 시간도 체력도 모두 부족해서 단체 법공부에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혜주간'은 수련생이 갖다줘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잊지 않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진상 알리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장이 쉬는 날이면 수련생들과 나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진상 탁상달력을 건넸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공장에 가져가 동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일할 때 머릿속에 여유가 있으면 법을 외웠습니다.

2016년, 시내에 있는 아이 집에 가는데 기차 안 좌석이 승무경찰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와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 모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시켰습니다. 통로 건너편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있거나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서, 유일하게 가장자리에 앉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던 40대 여성에게도 삼퇴를 권해 탈퇴시켰습니다. 제가 막 자리로 돌아오자 키가 큰 남자 승무경찰이 휴대폰을 들고 걸어 나오더니, 문가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객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발정념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돌아올 때 시내 기차역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끝없이 펼쳐진 인파를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토록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중공 악당에 세뇌되고 있으니 얼마나 가엾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지만, 저는 '많이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10여 명의 무장경찰이 앉아 있는 승객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걸음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진상을 알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반석처럼 굳건한 정념이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니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저는 양옆에 앉아 있던 50대 남녀 두 사람에게 몇 마디 건네 삼퇴시켰습니다.

2017년, 저는 한 차례 큰 소업(消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와 발열 가상이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온몸이 쑤시고 쉴 새 없이 기침이 나오는 바람에, 흉강이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 만에 저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달했고, 나중에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 년 내내 출근하느라 법공부 모임에 거의 갈 수 없었고, 혼자서도 법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심성과 오성이 좀처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이라 전부 성과급제였는데, 저도 속인처럼 이익에 집착해 돈을 더 벌려고 매일 필사적으로 일했고, 심각한 누락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을 때 사람마음이 올라왔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바보 같은 남편과 아무런 외부의 도움도 없고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도 못한 두 남매는 어떡하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외투를 입고 의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열이 심해서 폐렴이 됐으니 최소한 일주일은 링거를 맞아야 합니다." 저는 호흡은 좀 나아졌지만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가슴 통증도 동반됐습니다. 당분간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휴가를 냈습니다. 제 수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저녁에 법공부 모임에 가서 수련생들과 법공부를 했습니다. 교류를 거치며 제 오성이 올라왔고, 이틀간 링거를 맞은 뒤에는 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익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수련에서 따라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수련생들과 단체 법공부를 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몰고(당시에는 저만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았습니다) 수련생을 태워 각 마을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진상 스티커를 붙여 사람을 구했습니다. 병업 가상이 좀처럼 낫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전법륜)를 자주 외웠습니다.

어느 날, 한 수련생이 자신이 지금 '전법륜'을 외우고 있는데 이미 4쪽까지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명혜주간'을 볼 때면 수련생들이 '전법륜'을 외운다는 글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비록 내 기억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꺼운 보서를 다 외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해낼 수도 없다. 게다가 출근하느라 시간도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을 자주 꿨는데, 꿈에서 출근이나 등교에 지각하거나 오토바이를 찾지 못해 가지 못하는 꿈을 꿨고, 제 수련이 뒤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련생이 법을 외운다고 말하자 제 정념이 일깨워졌고,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어떤 일로도 법 암기를 지체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7년 11월 21일까지 '전법륜'을 한 번 외웠습니다. 제 병업 가상은 철저히 사라졌고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남편에게 시집온 뒤로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제 앞에서 그에게 시집온 것이 '아깝다'고 말했고, 아이들이 크면 제가 틀림없이 떠날 것이라고들 알고 있었으며, 제가 그와 계속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택 아파트의 모든 사람이 제가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줄곧 그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를 아주 깔끔하게 챙겨주는 것을 보고는 모두 제가 사람이 좋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와 수련생들은 모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 떠나지 않을 거고, 그에게 잘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떠났을 거고 도무지 함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령 떠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분수를 지키며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매일 남편의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다른 고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나중에 헤어진 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딸은 여러 차례 반항기를 겪으며 제 애간장을 다 녹였고, 집안에 금전적 손실도 일부 끼쳤습니다.

속인으로서는 정말 살기 힘들었겠지만 저는 수련인이기에 제가 그들 세 사람에게 빚진 것이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감당하기 힘든 한계에 달하면 수련생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 업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을 배치해 준 것은 바로 제 수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연공인(煉功人)의 각도에서 모든 일을 대해야 하고, 반드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짜증 나는 마음이나 원망심이 올라오기도 했고 폭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법을 외웠고 그러면 모두 누그러졌습니다. 한계에 달했던 수많은 순간에도 저는 법을 외웠고, 곧잘 지나갔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아침, 제가 연공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걸어와 온라인에서 10여만 위안(실제로는 20여만 위안이었는데 감히 한꺼번에 말하지 못함)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연체돼 혼자서는 갚을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금액도 너무나 막대해서 저는 자제력을 잃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폭풍우처럼 거세게 고함을 지른 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비 오듯 눈물을 흘렸고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대한 고비와 시련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걸까? 어째서 끝이 없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무슨 인연 관계란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부님의 법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문제와 마주치는가? 모두 당신 자신이 빚진 업력이 조성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서 무수하고도 무수한 몫을 없애주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약간의 것을 각개 층차 중에 나누어 놓았는데, 당신의 心性(씬씽) 제고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연마(魔煉)하고, 각종 집착심을 버리도록 설치한 일부 마난(魔難)이다. 이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난(難)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心性(씬씽) 제고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데, 당신이 모두 넘을 수 있게 한다. 당신이 오직 心性(씬씽)을 제고하기만 하면 넘을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이 넘으려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 넘으려 하면 넘을 수 있다.”(전법륜)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눈물을 닦고 밥을 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도록 챙겨주고 뒷정리를 마친 뒤, 저는 먹지도 않고 출근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출근해서 판자를 가득 실어 무게가 500kg은 족히 넘는 수레를 끌다가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오른팔 어깨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속인 중에서 말하자면 힘줄이 다친 것인데, ‘힘줄이나 뼈를 다치면 백 일은 간다’고 하니 또 단기간에는 출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매일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를 하고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법공부 팀의 8~9명 수련생은 모두 퇴직연금이 있었고, 단 한 수련생만 퇴직연금이 없었지만 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녀들

도 모두 가정을 꾸렸고 형제자매 사이도 아주 화목했습니다. 반면 저는 월급도 없고 아이들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했으며, 오빠와 남동생들 사이도 모두 불화해서 84세 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거나 불효하는 형제들이 있어 제가 도맡아 챙겨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몸이 편찮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100km 길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며 아버지를 보살피거나 아버지가 입원하시면 간병하러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다 갚지 못한 온라인 대출도 그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마음이 올라오면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아파와서 수련생들과 함께 있고 싶지조차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질투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악이 저와 수련생들 사이를 이간질해 저를 박해하려 한다는 것도 깨달았기에 결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만고의 기회와 인연을 붙잡고 세 가지 일을 잘하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출근하느라 진상 자료를 적게 배포했으니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저는 오토바이에 한 수련생을 태우고 낮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진상 스티커를 붙이며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했습니다.

사부님의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가 발표된 이후, 수련생들은 사부님의 경문을 몰래 배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생들에게 직접 건네줘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중공 악당의 박해 앞에서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고 사부님의 정법을 돕는 대법도(大法徒)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수련생들은 2명씩 조를 짜서 각 조가 몇 개 마을을 맡아, 반경 10km 안의 모든 마을을 다 돌 때까지 낮에 집집마다 찾아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줬습니다. 집집마다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발정념을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는 집, 혹은 빈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사부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2023년에 남편이 퇴직했고, 제가 가입해 둔 개인 사회보험에서도 퇴직연금이 나오게 되자 남편은 제가 일하러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더욱 다그쳐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줄곧 법을 지침으로 삼아 너무나 많은 고비와 시련을 돌파해 왔기에 머릿속에 법을 더 많이 담아야 했고, 수련생들에게도 자주 법을 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관건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 등의 경문도 모두 외웠고, 각지 설법 중에서도 상황에 맞는 단락들을 일부 외웠습니다.

지금은 출근하지 않아 시간이 생겼으니, 우리 수련을 지도하는 이 보서 '전법륜'을 가장 마땅히 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부 다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자는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전법륜'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명혜 편집부에서 사부님의 경문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우라고 건의했기에, 저는 닷새 만에 능숙하게 외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초범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제 정념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는

머릿속에 속인의 일이나 생각이 올라오기만 하면 법을 외우는데, 어느 단락이든 떠오르는 대로 외웁니다. 정법은 이미 최후의 최후에 이르렀으니, 저는 반드시 모든 사람마음을 내려놓고 세 가지 일을 잘하며, 사부님과 법을 100% 믿고 사부님의 정법을 도와 사부님을 따라 원만하도록 수련하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층차가 제한돼 있어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첩첩산중의 험난한 고비를 넘다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2005년 말 대법 수련에 들어온 여성 대법제자이며 올해 57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20년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이제 정법시기 수련 중 겪은 일부 일과 깨달음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 꽃 핀 지 17년

2009년 소형 엡손 프린터를 한 대 사서 스스로 명혜망에 접속해 진상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저 혼자 배포할 용도로 그때그때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2013년 지역의 한 대형 자료점이 파괴되고 수련생이 납치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변 수련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때는 프린터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캐논 프린터를 한

대 더 샀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진상 자료 수요가 갈수록 커졌고 세 번째 프린터도 샀습니다. 매년 9월부터 진상 달력을 제작할 때면 네 대의 프린터가 동시에 작동해야 했습니다.

17년 동안 이 자료점을 굳게 지켰고 17년 동안 마음을 닦고 집착을 제거했습니다.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수련인이 대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사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깨달음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법공부를 잘하고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날 프린터는 순조롭게 돌아갔고, 오늘 법공부를 잘못하고 사심과 잡념이 많으면 프린터는 즉시 빨간 불을 깜빡이며 에러를 보고했습니다! '기계를 수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수련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깊이 실감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제 심성이 제고되고 수련 경지가 승화함에 따라 프린터는 거의 고장 나지 않았고, 어쩌다 문제가 생겨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법에 있기만 하면 사부님께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주실 것을 알았고, 그대로 따라 하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할 때면 프린터도 경쾌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쓴 것은 캐논 2780 소형 프린터입니다. 이 기계는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인쇄된 글자가 선명하고 색상이 밝습니다. 처음에 판매자가 무한 잉크로 개조한 복합기를 샀습니다. 사용한 후 중고 공기계 한 대를 사서 직접 무한 잉크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이후 계속 120위안짜리 중고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고 기계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160g짜리 잉크젯 전용지를 끌어당기면서도 급지 롤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매년 1천 부 가까운 명혜망 진상 달력을 인쇄하

는 힘든 작업을 해냈습니다. 한 외지 수련생은 제가 만든 완성된 달력을 보고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전문가와 견줄 만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어떤 수련생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을 기할 필요는 없어요. 애를 쓰고 힘을 들이면 시간도 너무 많이 빼앗기니, 대충 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잘해야 한다.’ 저는 진상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운 진상 자료를 보고 마치 대법제자를 본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17년 동안 줄곧 지켜온 초심입니다.

## 진상 배포 중 겪은 아찔했던 순간 큰 늑대개가 그 자리에 굳어버리다

수련에 들어온 이후 저는 줄곧 진상 자료 배포를 견지했고 시간만 나면 하러 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는 제가 사는 현(縣) 도시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자가용이 길가에 주차돼 있어, 최근 몇 년 동안은 차량에도 진상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아찔했던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한번은 어느 날 낮에 큰 트럭에 소책자를 놓으려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분명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 유리에 몇 번이나 거듭 놓으려 해도 올려지지 않아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얼른 운전기사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해를 드렸네요. 안에 계신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직접 책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제가 배포하는 것은 진상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언비어와 비방 선전을 믿지 마세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진상을 아시고 선악을 명백히 가려 스스로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우리는 유쾌하게 작별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한번은 한 달 전 어느 날 오후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한 후 낯선 길로 들어섰습니다. 출구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막 고개를 돌리려 할 때 갑자기 길가에서 큰 늑대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 미친 듯이 짖으며 저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개는 즉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처럼 더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서둘러 스쿠터를 끌고 돌아나왔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가 없으셨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대법을 실증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 간에, 저는 제가 사부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거나 대법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새로워진 생명은 바로 법을 위해 온 것이고, 사부님께서 누명을 쓰시고 대법이 고난을 당하며 중생이 거짓말에 중독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대법의 일원이자 사부님의 제자로서 이때는 응당 주저 없이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 한 차례 정념을 발한 경험, 순수하고 바른 마음 15분 만에 효과를 보다

최근 몇 년간 자주 병업 고비 중에 있는 수련생을 위해 정념을 발했습니다. 저는 닫힌 상태에서 수련하는 데다 '7·20' 이후에야 들어왔기에, 늘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해 '7·20' 이전의 노수련생과 격차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한 정념이 정말 그렇게 큰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병업 중인 수련생을 위해 정념을 발하던 중 순수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정념의 위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념을 발하도록 도와준 수련생은 암종 통증이라는 병업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미 7~8명의 수련생이 동시에 2시간 동안 정념을 발했지만 뚜렷하게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 혼자 그곳에 가서 정념을 발할 때 그녀는 이미 10시간 가까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제가 15분 동안 정념을 발했을 때 그녀의 통증이 완화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서 정념을 발했는데 15분 만에 작용을 일으켰을까' 이후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련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 능력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련생을 이제 막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해 잘 몰랐고, 그래서 그녀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없었으며 지인 간의 그런 정(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순수하고 발랐기에 이 짧은 15분 만에 작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 병업 고비 중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어 다시 태어나다

수련한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병업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병업 고비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배뇨 곤란과 함께 작열통이 동반되어 10분이 채 안 돼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허리가 부어오르고 아파서 일어나거나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으며, 화장실에 갈 때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증상이 3주 동안 지속된 후에야 점차 완화됐고 병업 가상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한번은 두통이었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을 때 갑자기 왼쪽 관자놀이 안쪽에서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나 끔찍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심장이 쪼그라들고 피가 굳어버리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는 잠시 아프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바탕 통증이 지나가고 방금 겨우 정신을 좀 차리자마자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이런 감전된 느낌이 또 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벽시계를 보니 대략 3분 남짓마다 한 번씩 아팠고 통증은 30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통증이 멈출 때만 잠깐 졸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를 묘사하는 '죽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증상 역시 3주 동안 지속된 후 점차 통증 간격이 길어졌고, 서서히 저는 밤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병업 고비는 4개월이 걸렸고, 4개월 후 저는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병업 고비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든 저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련 중에서 소업(消業)해야 하는데, 소업은 곧 고통이다. 어디 편안하고 편안하게 공이 자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집

착심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전법륜)

심각한 병업 시련 중인 수련생이 병원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한번은 법공부 중에서 고비 넘기기를 포기하고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 점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다고 묘사하는 병세를 듣고 그 섬뜩한 검사 결과지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설상가상이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심각한 병업 고비에 있던 수련생들이 병원에 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20년의 정법시기 수련의 길을 돌아보며 제가 가장 깊이 체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공부를 잘하며 착실하게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한눈팔지 않고 세 가지 일을 잘할 수 있고 교란과 박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구세력의 모든 안배를 부정할 수 있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을 바르고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20년 동안 수련한 몇 가지 심득입니다. 인식과 수련 층차에 한계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신사신법하며 당당한 대법제자가 되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법을 얻었고, 다년간의 수련을 거치며 철부지 어린이 대법제자에서 착실히 수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대법제자로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사신법(信師信法) 측면에서 얻은 수련 체험을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 1. '뒷걱정'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닦아 없애기 매우 힘든 두려운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3년 전 한 강연에 참석했는데, 행사 중 소방관이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참혹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니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머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에 강당 밖 복도로 나갔는데도 불편한 느낌은 계속됐고,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온몸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머리와 바닥 사이에는 일정 거리가 유지됐는데,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금세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갈수록 밝아지면서 의식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즉시 이런 상태를 부정하며 사부님께 구해주십사

청했고, 약 1분 뒤에 괜찮아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순간에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으나, 진정한 고비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법공부 교류에 참가했을 때 갑자기 다시 어지럼증을 느꼈고 예전에 쓰러졌던 기억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쳤습니다. 길을 걷거나 스쿠터를 탈 때 예고 없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념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맴돌게 내버려 둔 결과, 며칠 동안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고 거대한 두려운 마음 탓에 정말로 어지러운 환각까지 생겼습니다. 나중에 발정념을 강화해 상태를 안정시키긴 했지만, 그 속에서 안으로 찾아 진정하게 제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걱정했으며, 심지어 수련의 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완전히 스스로를 속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공부와 안으로 찾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자주 속인의 기준으로 몸 상태를 대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면에는 사부님과 법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사부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고 확신하는 굳건한 일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느낌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어지러운 느낌이 엄습할 때마다 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마음이 갈수록 굳건해졌고 그런 반응들이 실은 모두 가짜라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이런 두려운 마음을 닦아 없앴습니다.

## 2. 박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다

제게는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는데, 어릴 적 수련을 시

작한 이래 줄곧 따라다닌 것으로, 바로 사악에게 교란당하고 박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제대로 수련하지 못하면 사악에게 빈틈을 찔릴까 걱정했고, 이로 인해 늘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수련을 대했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집착심이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자책하며 어느 날 교란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정진하게 만드는 듯했지만 사실 그 기점은 두려운 마음이었고,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의미와 3가지 일을 잘하는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몸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수련을 잘하지 못해 교란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교란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구세력을 두려워하며 늘 그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전생에 지은 업이 그들에게 박해당하는 구실이 될까 봐 두려워했으며, '사부님이 안배하신 길'과 '구세력이 안배한 길'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후, 중국 수련생의 수련 심득을 한 편 읽었는데, 그는 전생에 진 빚으로 인해 구세력에게 이번 생에 박해받도록 안배됐고, 전생에 그가 상처 입혔던 사람이 이번 생에 그를 박해하는 노동수용소 경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안배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부님께서만이 그의 모든 것을 안배하실 수 있고 자신은 사부님께서만 관여하시며, 다른 어떤 생명도 이런 원한 관계로 그를 박해할 권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른 믿음의 일념으로 경찰은 박해를 멈췄고 시련은 즉시 해소됐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세력 자체의 출현과 그것들의 배치한 일체마저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그것들의 존재마저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의 이 일체를 부정하며,

그것들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중에서 당신들이 행한 일체야말로 위덕이다. 그것들이 조성한 마난 속에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잘 걷는 것이며, 그것들 자체를 제거하는 마난의 표현마저도 승인하지 않는다."(각지 설법4-2004년 시카고법회 설법)

이후 몇 차례, 잘하지 못하면 구세력의 박해를 부를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나타나거나, 다른 공간에서 쏘아 보낸 가상과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모두 단호하게 그것들을 부정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진실하게 그런 생각들이 제가 아님을 알게 됐으며, 제 수련의 길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라 구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 3. 학술 연구에서 속인의 관념을 제거하다

현재 저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줄곧 학술 연구에 고도의 열정을 품어 왔고 미래의 수입이나 직업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제 전공의 취업 경로가 비교적 좁고 문턱이 높다는 점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졸업 후의 진로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이후의 직업 경력이 순탄하도록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성과와 실적을 쌓으려 조급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자주 타인의 경험을 유일한 성공의 길로 삼았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 단계에서 도대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도교수와 선배들이 종종 자신들의 경험을 제게 나눠 줬는데, 예를 들어 논문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학술대회는 얼마나 참석해야 하는지, 혹은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등이었고 이런 말들은 모두 제게 압박이 돼, 그들처럼 우수하지 않으면 제 미래도 암울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서서히 열등감도 쌓이기 시작해 우수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술계는 극도로 비교가 심한 환경이라 다들 어떻게든 두각을 나타내려 애써야만 장학금을 탈 수 있고 다른 이들의 눈에 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연구에 파묻혀 죽어라 매달렸습니다. 이때 누군가 외국어 능력이 좋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면, 저는 억지로 현 단계의 능력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자신을 압박했습니다. 또 누군가 학계에서는 사실 인맥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하면, 이는 또다시 인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요컨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른바 조언들은 끊임없이 제게 압박감과 열등감, 불안을 안겨 줬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항상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여 전 여름방학, 당시 받던 장학금의 기간이 마침 만료됐고 다른 학술 조교 업무도 일단락되면서 순식간에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자 심리적 압박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인터넷에서 집값과 물가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게 되면서 심경에 큰 영향을 받았고, 앞날이 캄캄하며 힘들고 보상도 없는 길을 선택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수련인의 길은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 속인들의 영향하에 저는 정념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사 논문 주제를 기획할 때 또 한 번 거대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제가 제안한 구상에 만족하지 않았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으며, 여러 번 수정해도 여전히 병목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교수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분야를 이용해 연구 내용을 포장하면 기존의 난관 일부를 우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그는 저를 위해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교수가 제 구상을 인정하지 않

은 것이 저를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고 여태껏 걸어온 노력과 헌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매우 낙담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시도 삼아 방향을 바꿔 보기로 했지만, 마음속의 저항과 압박감은 끊임없이 커졌습니다. 제게 있어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은 오랜 세월 공들여 가꾸어 이미 안정감을 형성한 예전 분야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고, 졸업 시기마저 늦춰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분야는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쪽이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못할까 봐 걱정됐고 남들이 제가 충분히 전문적이지 않다고 의심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후 저는 거의 매일같이 커다란 고뇌와 압박 속에서 맴돌았고, 자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면서 이명과 불면증까지 동반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한순간 또다시 거대한 공포에 빠져들었을 때,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수련인이 될 것인가? 이런 고뇌에 직면해 수련인의 정념을 확고히 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바로 사부님과 법을 충분히 믿지 못했기에 미래에 대해 막막함과 불안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길이 사부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것임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자신의 성취와 타인의 긍정을 개인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삼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에 늘 동료나 교수의 인정을 구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인 양 여겼습니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학술 연구에 있어 설사 남들이 제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제 족쇄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다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래의 길이 갈수록 좁아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제도되려면 반드시 직접 이 간고(艱苦)한 환경 속에서 · 어려움 속에서 · 이익 속에서 · 정욕(情慾)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당신이 속인의 이치에서 걸어 나오고 · 속인의 집착 속에서 걸어 나오면 당신은 바로 신이다.”(2004년 뉴욕 국제법회 설법)

사부님의 이 말씀이 저를 일깨워 줬습니다. 저는 속인들처럼 좋은 진로를 위해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으며, 그저 마음을 다해 연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이자 우주에서 가장 행운아인 생명이며, 이 시기에 사부님을 도와 정법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비할 바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속인의 평가로 자신을 긍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또한 법 암기를 통해 정념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불안에 부딪힐 때면 이성적으로 그 배후의 관념을 분별하며 난관을 넘겼습니다.

## 4. 사부님을 굳게 믿으면 사부님의 안배가 보인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無求而自得).”(시드니법회 설법)

모든 걱정을 철저히 내려놓고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 분야를 바꾼 후, 표면적으로 저는 과거에 익숙했던 길을 포기했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겼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이후에 새로운 분야가 제 사고의 각도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고, 과거의 협소한 시야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탐구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줄곧 연구를 통해 진상을 알리고 중공 악당의 진면모를 논술하기를 바랐는데, 새로운

논문 주제가 제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부님의 고심 어린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것을 내려놓고 나니 사부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기회와 장학금 취득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연구 중에 길러진 능력과 안목 역시 제가 법을 실증하는 항목을 잘 해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진정으로 떠나간 것은 수련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던 낡은 관념들이었습니다.

## 맺음말

최근 몇 년간의 수련 속에서 저는 사부님의 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안달복달했던 많은 문제들이 심성이 제고된 후 뒤돌아보면 모두 사부님과 법을 충분히 믿지 못해 생긴 사람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사심을 용감히 내려놓기만 하면 신사신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며, 속인의 공명과 이익에 대한 추구를 담담히 내려놓고 학술 연구를 하는 동시에 3가지 일을 착실히 잘해 나가기를 기약하려 합니다.

이상의 심득 체험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 직장과 단체 교류 속에서 수련하다

글/ 호주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줄곧 영어를 사용하는 수련생들에게 법회 교류 원고를 쓰라고 격려해 왔습니다. 당연히 저 자신도 교류 원고를 써서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수련 환경에 동참해야 합니다.

1951년에 태어나 1999년 초에 법을 얻은 노(老)수련생으로서, 그동안 많은 교류 원고를 썼습니다. 그중 많은 원고가 법회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매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아내는 최근 제게 1년에 한 번만 수련 상태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의 수련 상태를 돌아보며 집착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깨워줬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척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데만 치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 수련생들도 결혼이 수련에 가져다주는 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가 종종 옳다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 온 것으로서 아주 이치가 있다."

이것이 몸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 제가 아내의 왼쪽에 앉아야 하는 이유라고 이해합니다. 영어

에서 '오른쪽(right)'이라는 단어는 '옳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여자는 오른쪽'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아내가 제 집착심을 지적할 때 그녀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 교류 원고 초안을 다 쓴 후 아내에게 한번 보라고 줬습니다. 그녀는 주의할 만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짚어주었고, 이런 측면들과 저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격려해 줬는데,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는 다른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겪은 몇 가지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 1.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다

나이가 들면서 규칙적인 연공과 법공부, 발정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떤 연령대의 대법제자에게나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수련생에게는 그 결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일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제 직업이 오래된 건물과 건축 현장을 검사하고, 관련된 위험 물질을 보고하며, 안전 작업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집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서둘러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시골로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 스프링클러를 옮기고 뿜어져 나오는 물을 피하려고 잔디밭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옹벽에 걸려 넘어져 뒤로 벌렁 나자빠지면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시멘트 진입로로 떨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질

때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고, 그 결과 몸 한쪽이 땅에 닿았으며, 시멘트 바닥에 부딪힐 때 엉덩이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시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첫 일념'의 중요성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본 이웃이 "괜찮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즉시 "전 아주 괜찮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걸어가 제1장 공법인 '불전천수법(佛展千手法)'을 연공했습니다. 팔다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정원 손질을 계속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엉덩이가 크게 부어올랐고, 걷기가 힘들었으며, 그쪽 몸을 바닥에 대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섯 가지 공법을 연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할 때 단번에 끝내려는 마음에 조급했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 사부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몸을 틀게 도와주셨거나, 아니면 다른 고급 생명이 '그를 시멘트 바닥에 세게 넘어지게 놔두자, 그게 그에게 더 좋을 거야!'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일어나 4시간을 운전해 시골로 갔습니다. 원래는 집에 머물며 쉬려 했지만, 제 책임을 생각하고 그래도 갔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서 저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는 그 고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직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태도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6일 동안 일했고, 걷기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일을 마쳤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주 커다란 검붉은 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뒤로 넘어진 것이 아마 제 수련이 퇴보했다는 뜻일까요? 어떤 집착심 때문에 넘어지게 됐는지 반성해 보며 질투심, 쟁투심, 과시심, 환희심 등 불완전한 목록을 나열해 보았지만, 어느 하나도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情)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가족을 신경 쓰지만, 한편으론 혼자 지내는 것에도 꽤 익숙하므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일까요?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않지만, 통밀빵과 아내가 만든 만두를 좋아합니다. 가끔 TV에서 럭비 경기를 보거나, 집 꾸미기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아마도 이런 집착심들 때문에 넘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것이 공평하며, 수련인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좋은 일이고, 고생을 겪는 것은 수련의 일부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업을 없애기 위해 고생을 좀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 2. 법공부

몇 달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았고, 엉덩이에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느껴졌으며, 이는 정상적인 보행과 다른 활동에 지장을 줬습니다. 넘어진 것이 저의 법공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꾸준하게 법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몇 주 동안 뉴사우스웨일스주 곳곳을 운전하며 일했는데, 그동안 정해진

대로 법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똑바로 설 수 없었으며, 연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자세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아 '전법륜'의 앞 다섯 강(講)을 법공부했고, 그러자 정상적으로 설 수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법공부를 미봉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법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그 경험을 떠올리며 몹시 법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법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마치 자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법륜' 세 강을 읽었고, 엉덩이의 통증이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제 몸은 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법공부를 해 법을 한 강, 때로는 두 강을 읽은 후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좋은 상태로 대법 일과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해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 3. 중공 박해를 받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

지난 5년 동안 호주 파룬따파 단체를 대표해 중공 박해 피해자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모든 연맹 단체 회원들은 각자 중공으로부터 박해받은 경험이 있으며, 각기 고유한 집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 단체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적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집단과 중공의 박해 아래 그들이 겪은 고난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파룬궁에만 관심을 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중공과 투쟁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중공 폭

로’를 원하며, 그러면 중공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것을 타도하자, 저것을 타도하자”라고도 외치지 않습니다. 이 단체들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고, 오해를 피하며, 파룬따파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인지에 몰두했습니다.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다른 단체의 집회에서 파룬따파가 중공으로부터 겪고 있는 박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공통된 근원은 바로 중공의 사악함입니다.

몇 년 전, 연맹에서 중국 민주화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파룬따파 단체를 대표해 발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국의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사람들이 대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며칠 시간을 들여 약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만약 정성을 쏟는다면 사부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전통 중화 문화에는 1인 1표 행사라는 민주주의 개념은 없지만, 민중에게 지극히 중요한 지위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에서 파룬따파가 중국 민중의 심령을 일깨우고 있고, 대법의 뿌리가 전통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법이 중국에서 광범위한 환영을 받은 것과 ‘진선인(眞·善·忍)’의 법리, 중공이 왜 파룬따파를 박해하는지, 그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통해 중국 민중이 자유를 얻도록 돕는 대법제자들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5대 고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중에는 민중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또한 사람과 하늘의 전통적인 관계, 하늘이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통치자가 어떻게 하늘의 도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룬따파가 어떻게 중국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神性)한 기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찾게 하고,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자유 의지를 찾게 하며, 중국을 전통적인 중화 도덕과 치국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하게 하는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참석자가 제 설명에 찬사를 보냈고, 그들은 '민주주의', 혹은 민중에 대한 관심이 단지 서구의 이념일 뿐만 아니라, 전통 중화 문화에도 그 기초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중공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집권 지위가 불법임을 깨닫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그들이 파룬따파를 두려워하고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발언이 끝난 후, 그 자리에 있던 한 화교 수련생이 "어떻게 그렇게 중국 문화를 잘 아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건 제게도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발언이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신 분은 바로 사부님이십니다.

파룬따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상을 알리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이 쏟은 거대한 노력에 대해 나눴고, 연맹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 역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이니, 마땅히 정법(正法)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 9월 27일, 중공의 사악한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일깨우고자 시드니 시청 밖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맹의 몇몇 단체가 발언을 통해 파룬궁을 칭찬했으며, 중공의 본질을 폭로하려는 파룬궁의 노력이 이들 집단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8월 18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밖에서 열린, 파룬따파가 주최한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연맹 소속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시드니에서 캔버라까지 일부러 달려와 집회에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고무적이고 새로운 진전입니다.

이상은 제한된 층차에서의 교류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호주 법회 원고)



▲ 2026년 10월 25일, 호주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멜버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09만 9834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